

4. 담임목사 정기 신임투표 제도에 대한 폐지 권고 안

실행위원회 상정안 (초안)

* 담임목사 정기 신임투표 제도에 대한 폐지 권고안

본 총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주기적 또는 정기적 신임투표 제도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침례교회(SBC)의 교회 질서와 목회 원칙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총회는 소속 교회들이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대신 성경적 원칙에 따른 목회자 해임 절차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목회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권고 안에 대한 보충 설명

대부분의 남침례교회는 각 교회의 현장에 따라서 목회자의 자질시비와 비리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도사무총회를 통한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권고사직 통고나 때로는 자발적 사직으로 목회자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3년이나 6년마다) 신임투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기적으로 홍역을 치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는 개 교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가 비성경적이고 건강치 못한 “신임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권고와 성경적 지침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징계와 재신임을 결정하는 처리의 문제는 교회가 임시적으로 목회자의 위법성과 비성경적 타락의 증거가 명확할 때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신임투표제도는 성경이 제시하는 목회자의 본질, 권위, 그리고 교회 운영 원리와 충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성경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지는 직분이기 때문

성경에서 목회자는 사람의 인기나 다수결로 유지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검증을 통해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따라가는 다수에 의하여 투표를 통하여 교회는 목회자를 안수, 또는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의 사역이 무조건 다수의 결정에 따라 무조건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28 →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함

에베소서 4:11 →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간의 투표로 주기적으로 승인을 받게 하는 구조”는 직분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를 ‘정치 지도자’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신임투표가 가까워지면 교회가 사역보다는 정치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재신임을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들에 의한 설득이나 회유가 교회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기적인 신임투표가 반복되면 목회자가 다음과 같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성경적 설교보다 인기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는 성도 지향적 목회를 합니다.
- 다수의 죄를 책망하기 어려워집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 계속

갈 1:10 →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목회자는 양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3) 성경은 목회자의 자격상실 시 목회자 교체 또는 면직을 권고할 뿐 ‘정기 투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회자에 대해 다음 기준을 제시합니다.

- 디모데전서 3장: 목회자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제시합니다.
 - 디도서 1장: 목회자의 인격과 가정 관리에 관한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 디모데전서 5:19-20: 교회 지도자에게 죄가 발견되었을 때 엄중히 책망할 것을 권고합니다.
- 반대로 허위로 교회 지도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에게도 엄중히 치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성경적 원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합니다.
- 목회자의 자격이 무너지면 사역을 반드시 중단시킵니다.
 -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수에 의한 인기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4) 주기적 신임투표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킨다

목회자가 주기적으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면 목회자의 권면과 책망이 약해집니다. 목회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교회의 장기적 사역이 어렵고 목회의 지속성이 어렵습니다. 주기적인 신임투표 전에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목회자를: 파수꾼 (에스겔 33장), 목자 (요한복음 10장), 영혼을 위해 깨어 있는 자 (히 13:17) 로 묘사합니다. 이 직분은 인기보다 책임이 더 큼니다.

5) 성경적 모델은 성도들에 의한 ‘목회자 평가’가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존경과 성도들에 대한 목자의 돌봄’을 제시합니다. 성경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사는 영적으로 성도를 돌보고 성도는 목회자 사역이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 공동체가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합니다.
- 만일 죄가 있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권징 또는 징계합니다.

하지만 정기적 신임투표는 교회를 정치화 또는 파벌 형성 그리고 교회 내 갈등을 유발할 많은 가능성을 가집니다.

* 침례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회자/신학자들의 의견

1. John Piper (SBC 교회 다수에 영향을 준 대표적 침례교 목회자)

“목회자는 사람들의 정기적 평가를 통과해야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인격에 충성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John Piper,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2. Mark Dever (SBC 내 교회론 영향력 최상위 인물)

“성경적 회중주의는 지도자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정치 구조가 아니다. 회중의 권위는 말씀에 대한 책임이지, 인기 판단이 아니다.” Mark Dever, “Understanding Church Authority”

3. Jonathan Leeman (9Marks 편집장, SBC 신학 교육 현장에서 널리 인용)

“회중의 권위는 목회자를 평가하는 관리 권력이 아니라, 복음의 경계를 지키는 책임이다.”
Jonathan Leeman, “Church Membership”

4. D. A. Carson (SBC 신학교·목회자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신약성경은 교회의 지도력을 현대 민주주의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교회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다.”
D. A. Carson, “The Cross and Christian Ministry”

5. Ed Stetzer (전 LifeWay Research 대표, Talbot 신학교 학장)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Ed Stetzer, “LifeWay Research”